

유엔 인권수장 등 세계 인권전문가 1000여명 광주 온다

■ 세계인권도시포럼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막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참석...5·18묘지 참배

뉴욕시 인권위 부위원장 등 인권리더들 국제연대 모세

유엔 인권분야 최고 책임자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권전문가 1000여명이 광주를 찾는다. 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주시와 유네스코

(UNESCO),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 주최하며, 전 세계 인권 관계자 1000여명이 집결해 국제적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는 유엔 인권분야 최고 책임자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처음으로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직접 참석한다.

튀르크 대표는 14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또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에 경의를 표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전 라울발렌테리 인권법연구소장인 모르텐 사에름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조앤 카머프 워드 뉴욕시 인권위원회 정책 및 대외협력 부위원장, 피터칸 시티넷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모르텐 코흐 안데르센(Morten Koch Andersen) 라울발렌테리 인권연구소 교육 및 연구국장 등 세계 인권 리더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대응하는 인권도시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논의한다. 이어 여성,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등 6개 분야별 주제회의를 통해 주요 인권현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특별회의에서는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와 협력해 'AI시대 인권과 웰에이징' 등 미래 인권 의제를 논의한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 민관협력(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와 5·18 사회적 인권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 현장 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박용수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참석으로 광주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강화됐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광주가 세계 인권도시 협력의 중심 플랫폼으로 도약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도 신입 외국인 유학생 교육 고관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신입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누적 관람객 3만3000명

어린이박물관·체험 프로그램 '호응'...역사교육장 안착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지난 3월 개관 이후 3만3000명이 넘는 누적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역사교육장으로 안착하고 있다.

3만3000명은 임진왜란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국난 극복에 앞장선 남도의병의 수여서 의미를 더한다. 박물관 외벽에는 이를 상징하는 3만3000개 알루미늄 패널 키네틱 파사드가 설치됐다.

의병박물관은 개관 이후 평일 평균 200~300명, 주말 800~12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군부대, 대학 등 기관·단체 방문도 이어

지고 있으며, 어린이박물관과 체험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초·중·고교 등 단체 관람 예약도 이어져 청소년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병박물관은 3만3000번째 관람객인 고흥에 거주하는 송기열씨를 위한 환영 행사를 열었다. 송씨에게는 앞으로 의병 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지속해서 받아보는 특전이 주어진다.

송씨는 "남도의병의 수를 상징하는 3만3000번째 관람객이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집안에 병자호란 때 의적과 싸우다 순국하신 분도 계셔 환영식이 더욱 감회 깊

다"고 전했다. 의병박물관은 관람객 편의 향상을 위해 5월 중 카페테리아를 열 예정이다. 관람객은 전시 관람 후 영상강과 다아플 일원의 경관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다.

박중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관람객 3만3000명 돌파는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남도의병의 뜻을 되새기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더 많은 도민과 관람객이 의병 역사를 가까이 접하도록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나주 공산면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최초 의병 전문박물관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의병 역사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ilbi@gwangnam.co.kr

마한 역사문화권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전남도, 나주 복암리 등 국가사적 4곳 42만732㎡ 대상

전남도가 영산강 유역 마한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절차에 착수했다.

고대 동아시아 장례문화의 독자적 유형으로 평가되는 마한 공관문화의 가치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립해 역사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관광과 지역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등재 대상은 '마한 공관고분군'으로, 나주 복암리 고분군과 반남 고분군, 오랑동 요지, 영암 시종 고분군 등 국가사적 4개소가 포함된다. 대상 면적은 42만732㎡로, 영산강 유역에 분포한 마한 문화 핵심 유적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 유적은 3세기부터 6세기 사이 형성된 마한

사회의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대형 옹관을 무덤으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지역이 세계적으로도 영산강 유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전남도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핵심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정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순한 유적 보존을 넘어 동아시아 고대사회 문화 교류와 지역 고유 문화 형성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화해 국제적 설득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실제 지난 2023년 신안에서 열린 마한 역사문화 국제학술회의에는 한국과 중국,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5개국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마한 문화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2024년 여수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1500여명이 참여해 학술대회와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대중 인지도를 높였다.

작년 9월 목포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등 4개국 연구진이 참여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절차에 따라 보완 과정을 거쳐 2026년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0월 국제학술회의를 추가로 열어 학술적 근거를 강화하고, 등재 논리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29일까지 52명 접수...20개월 교육·실습·창업 연계 지원

전남도는 미래 첨단농업을 이끄는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9기 교육생 52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거주 지역과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9일 오후 3시까지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에 하면 진행된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선발된 교육생은 오는 9월부터 총 20개월간 전문교육 과정에 참여한다. 교육은 작물기초, 환경제어, 데이터 분석 등 입문 교육 2개월, 보육센터 실습실에서 진행

하는 교육형 실습 6개월, 교육생이 작물 전 생육기간에 걸쳐 농업경영을 실습하는 경영형 실습 12개월로 운영된다.

교육 품목은 청년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딸기, 토마토, 멜론과 아열대작물인 레몬 등이다. 실습 기간에는 전문 컨설턴트 자문과 선도농가 견학 등 현장 중심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입문 교육 과정에는 교육 당일 숙식비를 지원하고, 교육형·경영형 실습 기간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